

MOVE BY STORY VOL. 12

20130430

당신을 흥드는 일상의 여행, 오늘도 무브하세요!

INDEX

- TRAVEL** 손미나의 여행사전 - 여유, 영국 런던
여행 친구 - 여유를 사랑하는 뮤지션 장기하의 런던 예산
- PEOPLE**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 승주나무 오승주
- MUSE** 여유의 온도

MOVE by STORY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발견해 소개합니다.
MOVE by STORY는 세상 사람 모두가 자기만의 이야기를 갖게 되길 꿈꿉니다.

MOVE by STORY VOL.12

발행 브랜드 스토리텔링 컴퍼니 (주)봄바람
www.bombaram.net / 02-3142-0588
bombaram@bombaram.net
http://www.movebystory.com

발행일 2013년 4월 30일

발행인 김상아

스토리텔링 김상아, 선민정, 이재미, 김보미
디자인 김광혁(R2D2)
일러스트 민지홍
사진촬영 문두열 외

도움주신 분들 여행 팟캐스트 <손미나의 여행사전> www.facebook.com/travelpodcast
출판사 이야기나무 www.yiyaginamu.net
R2D2 visual www.facebook.com/r2d2visual

MOVE by STORY를 만나는 방법

- 매월 10일, 20일, 30일 <손미나의 여행사전> 팟캐스트와 PDF가 함께 업로드됩니다.
4페이지 팟캐스트 구독방법을 참고해주세요.
- 동네서점 팅스북스 www.thanksbooks.com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총대점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7-13 더갤러리 1층 / 가로수길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4-18 5F



손미나의 여행사전

한 달에 세 번, 귀로 듣고 상상으로 떠나는

프리미엄 여행 팟캐스트

여행지 테마



LONDON, UNITED KINGDOM

여유

12회 with 장기하

무심코 만나는 여유.

영국 런던



MARAIS

영감

1회 with 윤종신
창조적 영감으로 가득 찬
프랑스 파리 마레



PRAGUE

낭만

2회 with 최국 여배우들
낭만의 도시
체코 프라하



LOWER MANHATTAN

변화

3회 with 원더걸스 예은
변화의 에너지가 넘치는
미국 뉴욕 로어 맨해튼



VENICE

비밀

4회 with 유희열
비밀을 간직한 도시
이탈리아 베니스



QUEBEC CITY

도착

5회 with 이적
출발과 도착이 공존하는 곳,
캐나다 퀘벡



LONDON

추리

6회 with 김석훈
모두가 명탐정이 되는 도시,
영국 런던



BORMES-LES- MIMOSAS

절정

7회 with 이영미
노란 맥박이 뛰는 절정의 세계,
프랑스 보-레-미모자 마을



SICILIA ISLAND, ITALY

천국

8회 with 김수호
살아있는 자만이 누리는 천국,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극지 도전

9회 with 윤승철
지상의 끝에서 만나는 도전



BERLIN, GERMANY

통하다

10회 with 이재용 감독
One-통(원통)한 도시,
독일 베를린



대한민국 바람

11회 with 스위트소로우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바람을 찾아서

손미나의 여행사전

여유, 영국 런던 London, United Kingdom

스토리텔러 이재미 — yeondu@bombaram.net

여행할 장소에 대한 조언은 어디에나 널려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와 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 힘들다.
- 알랭 드 보통

여행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동기가 없어서 떠나지 못한다.
나를 흔들어 깨우는 여행이 무엇인지. 항상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시계 시침이 아침 9시, 저녁 6시만 존재하는 걸 잠시 잊었다.
느지막히 일어나 걷는 공원에서는 그 안의 공기를 모조리 마시고 싶었고,
주인장이 직접 선곡하여 틀어주는 앨범은 어찌나 그날 분위기에 잘 맞는지.
우연히 들어간 레코드점에서는 한동안 헤드폰을 껏가에서 떼지 못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아침에는 우울함이 무색해지는 골목으로 달려가
매장이 하나씩 열리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그 모든 발걸음은 하나로 연결되었다.

내게 필요한 건 시간이 썩까 지나는 걸 일일이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 보내는 여유였다.
런던은 그걸 내게 안겨주었다.

12회 런던 편은 비자카드와 함께 합니다. www.visakorea.com



<손미나의 여행사전> 팟캐스트는 매월 10, 20, 30일 3회 발행됩니다.

손여사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travelpodcast>

아이폰 사용자 - <https://itunes.apple.com/kr/genre/podcast>

안드로이드 사용자 - <http://www.podbang.com>

사운즈 오브 더 유니버스

닐스 야드 레머디즈

프로스펙트 오브 워드바이

주디스 블랙록 플라워 스킨

더 카도간

LONDON, UNITED KINGDOM

영국 런던





GARDENING

매력포인트 1

가드닝, 숲 일부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정원

런던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스케치북에 드로잉을 하는 사람이 많은 박물관, 편의점보다 더 찾기 쉬운 서점, 그리고 무엇보다 겉다 보이는 낮은 울타리 너머 '클래식' 한 정원 때문이다. 영국의 전형적인 주택가를 지나다보면 계절에 맞는 꽃과 화분을 품고 있는 정원을 볼 수 있다. 흔히 사람을 만나면 지니고 있는 소품으로 상대를 알 수 있듯 영국에서는 정원을 보면 알 수 있다. 영국인은 평생 가드닝 비용으로 약 2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삼천오백만 원을 쓴다고 한다. 그래서 가드닝을 주제로 한 책과 잡지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인테리어 속에는 가드닝 코너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다. 혹시 가드닝이 조금 생소하다면 플라워링은 어떨까? 주디스 블랙록 플라워 스쿨에서 국가 공식 행사 때 영국 여왕의 부케를 담당하는 주디스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매달 계절에 맞는 플라워링 또는 나만의 부케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코스는 Spring Flower다. 한국인 상담원이 있고, 칠판에 "안녕하세요." 라고 쓰인 문구를 보면 긴장된 몸이 스르륵 녹는다. 다국적 수강생들과 함께 흥미 넘치는 수업은 약 3시간 동안 이뤄진다.

JUDITH BLACKLOCK FLOWER SCHOOL
 LOCATION: 4/5 Kinnerton Place South, London SW1X 8EH
 TEL: +44-20-7235-6235 WEB: www.judithblacklock.com/

STORYTELLER'S TIP

비자카드 홈페이지의 쿠폰북을 제시하여 결제하면, Judith Blacklock Flower School에서 1일 코스 10% 할인 및 주디스의 저서를 받을 수 있다.





AFTERNOON TEA

매력포인트 2

애프터눈 티, 기다림을 통해 짙어지는 오후의 흥차

영국인은 하루에 7~8잔의 차를 마신다고 한다. 아침에 마시는 모닝 티, 점심시간에 즐기는 밀크티, 4시부터 6시 사이 살짝 허기질 때 마시는 애프터눈 티가 있다. 하이드파크를 산책하다가 더 카도간으로 향했다. 실내는 그야말로 중세시대로 들어가는 기분이다. 그림에 둘러싸인 실내와 넓은 소파, 테이블은 오후의 여백을 만들어준다. 아삼, 다즐링, 실론 등 대표적인 흥차부터 허브차, 저카페인 차까지 20여 종류의 차를 제공한다. 애프터눈 티 메뉴를 주문하면 기본 3층 레이어드 세트 다과와 취향에 따라 삼페인을 추가로 곁들일 수 있다. 차를 주문하면 약 30분 정도 기다리면 되는데 그 시간만큼은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애프터눈 티는 따뜻한 것에서 차가운 순으로 먹는 게 순서다. 방금 구워져 나온 스콘이나 빵을 제일 먼저 버터에 발라먹고, 그다음에 샌드위치나 케이크, 마카롱을 먹으면 된다. 그동안 찾았이 뜨거운 물에 우려나 맛과 향이 제대로 피어난다.

THE CADOGAN

LOCATION: 75 Sloane Street, Knightsbridge, London SW1X 9SG

TEL: +44-20-7235-7141 WEB: www.cadogan.com/afternoontea-en.html

STORYTELLER'S TIP

비자카드 홈페이지의 쿠폰북을 제시하여 결제하면, The Cadogan에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매력포인트 3

펍, 서로 다른 브랜드 맥주에 약해지는 시간

점심시간이면 잔을 부딪치는 소리가 거리에서 들려온다. 우리는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게 일상이라면 런던은 가볍게 맥주를 마시는 게 그러하다. 펍은 퍼블릭 하우스(Public house)의 약자인데, 보통 시민이 즐겨찾는 선술집을 말한다. 런던 펍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술이 도수가 낮아서 점심, 저녁 모두 편하게 마실 수 있다. 특히, 점심에 들리는 펍은 낮술이라는 개념보다 오전 업무를 끝내고 오후를 준비하는 중간통로와 같다. <손미나의 여행사전>이 방문한 펍은 500년 역사를 기록하는 '프로스펙트 오브 워드바'이라는 곳이다. 흥미롭게도 100년, 200년 된 펍은 영국에서 명함도 못 내민다고 한다. 그만큼 펍은 오랜 시간 자리 잡았고 지금까지도 영국인에게 밀착된 공간이다. 예전에는 선원들이 항해를 떠나기 전에 이곳에 들러 음식과 맥주를 간단히 하고 떠나고, 돌아와서도 이곳을 들렸다고 한다. 카나리 워프 지역이 보이고, 템즈 강 전망이 눈에 들어오는 베란다로 나간다면 배 위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마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 첫 페이지에서 주인공이 조르바를 만난 광경 같다고 할까?

PROSPECT OF WHITBY

LOCATION: 57 Wapping Wall, Wapping, London, E1W 3SH

TEL: +44-20-7481-1095 WEB: www.taylor-walker.co.uk/pub/prospect-of-whitby-wapping/c8166





매력포인트 4

마켓, 런던의 취향을 함축해 놓은 골목길

우연히 길을 잃어 닿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 뒤, 그곳을 다시 찾을 수 없어 애간장을 태운 적이 있다. 목적을 갖고 찾아가는 것보다 의외성에서 얻은 기쁨이 더 큰 곳이 골목길이다. 마냥 런던의 골목을 거닐고 싶어 찾은 곳은 널 스트리트이다. 매장이 열리기 시작한 아침 9시, 비가 또로록 벽면 지붕에 흘러내렸고, 살짝 차가워진 공기 사이로 허브향이 코끝을 맴돌았다. 문이 열린 매장으로 들어가 보니 벽면에는 온통 오가닉 제품이다. 런던은 자연주의를 지향하는 브랜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곳은 그 중 하나인 널스 야드 레머디즈. 이곳에서 자체 제작한 tea를 한잔 마셨는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다. 아직은 쌀쌀한 4월, 비가 내리면 이 차를 준비한다는 데 그 마음이 세심하다. 오가닉 제품은 무슨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말하는 정직함에서 힘을 얻는다. 모든 원료는 유기농 인증을 받았고,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 표기되어 있어 믿을 만하다.



NEAL'S YARD REMEDIES

LOCATION: 15 Neal's Yard London WC2H 9DP
TEL: +44-20-7379-7222 WEB: www.nealsyardremedies.com

STORYTELLER'S TIP

비자카드 홈페이지의 쿠폰북을 제시하여 결제하면,
Neal's Yard Remedies에서 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매력포인트 5

뮤직, 찾고 싶은 앨범을 발견할 것 같은 환상

런던 소호거리에 레코드가게를 둘러보면, 찍어 낸듯한 매장이 아닌, 주인장의 손길이 하나하나 묻어있는 곳을 만날 수 있다. 일단 들어가면 선곡부터 남다르다. 그간 잊고 있던 밥 딜런, 사이먼 앤 가펩클 음악이 흘러나오면 마음은 동요된다. “그래. 이 음악을 들으러 9,200여 km를 날아왔구나.” 싶다. 그 노래가 정확히 누구 노래인지 알 필요는 없다. 흐르는 음악에 살랑이는 몸과, 눈 아래 펼쳐진 수많은 앨범. 주인이 하나씩 손으로 설명해나간 카테고리 구분 편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날 것 같다. 이런 아날로그적 감성이 여태껏 숨 쉬고 있다니. 매월 새로운 앨범이 밀려오고, 올드 음반과 월드 뮤직이 평균 수명은 짧아지는데 찬란한 한때를 보낸 앨범이 그 진가를 알아본 이곳에 놓여 있어 참 다행스럽다. 요즘 영국도 앨범 판매가 줄어들어 몇 개의 매장은 휴업 중이라고 하는데 부디 놓치지 아까운 앨범이 런던 곳곳에서 흘러 나오길 바란다.

SOUNDS OF THE UNIVERSE

LOCATION: 7 Broadwick Street Soho London W1F 0DA

TEL: +44-20-7734-3430 WEB: www.soundsoltheuniverse.com

여행 친구 여유를 사랑하는 뮤지션 장기하의 런던 예찬

스토리텔러 선민정 — haneul@bombarum.net

최근 이슈화된 '백지수표 프로젝트'와 함께 신곡 <좋다 말았네>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뮤지션 장기하. 느릿한 말투에 조금은 엉뚱한 것 같다가도 그가 뱉어내는 한마디 한마디는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여유를 사랑하는 그가 전하는 런던 예찬, 그리고 여행에 대한 생각들. 지금부터 만나보자.

Q. 최근 발표한 신곡<좋다 말았네>와 함께 '백지수표 프로젝트'가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현재 음원이 판매되는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저런 생각이 많았는데 대중이 좋아하는 음악을 원하는 가격에 사서 들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하는 생각에 계획하고 실행하게 되었다. 그렇다 보니 <좋다 말았네>는 일반 음원 사이트에서는 들을 수 없고 현대카드 뮤직에서만 서비스되었다. 0원부터 자유롭게 스스로 가격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한시적 이벤트이긴 하지만 음원시장에 얽힌 문제들을 풀어가는 하나의 사례 또는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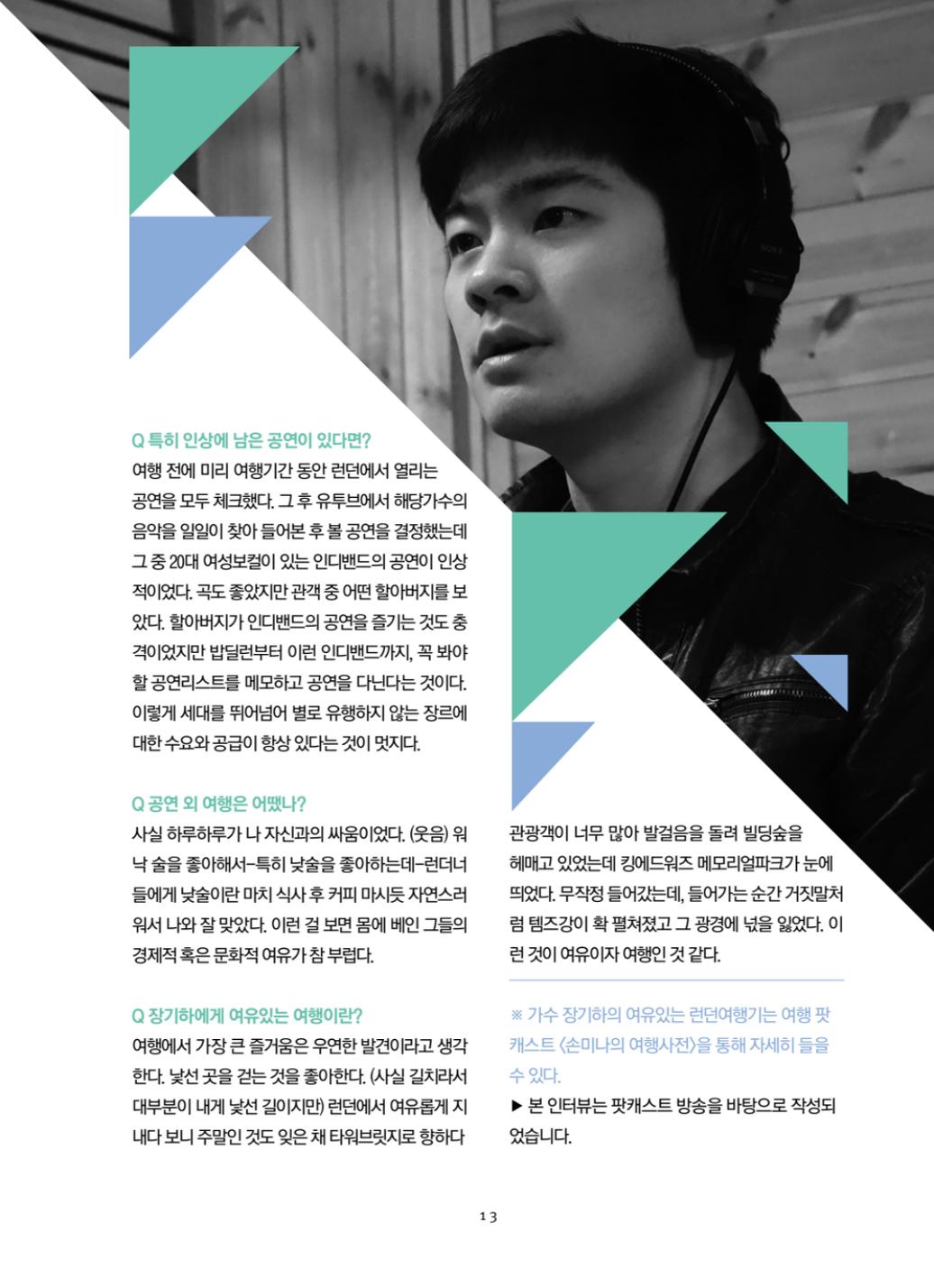
Q 런던에는 어떻게 가게 되었나?

작년에 우연한 기회로 여행을 쓸 목적으로 가게 되었다. 사실 첫 런던여행이었고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일 수도 있었는데, 생각하고 기대했던 딱 그대로였다. 비틀즈를 비롯 영국 음악을 워낙 좋아하고 영국식 영어도 좋아하다보니 여행이 끝날 때까지 런던의 로망

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다. 날씨가 맑아도 좋았고 비가 와서 아스팔트가 축축히 젖어있는 것만 봐도 좋았다. 다른 유럽 도시보다 투박한 느낌이 있었는데 런던은 뭔가 일관된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Q 여행하는 동안 공연도 많이 봤을 것 같다.

질문과 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여행은 혼자 다닐 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여행을 친구나 가족과 함께 간다면 한국에서 늘 만나는 사람과 장소만 이동해 술 마시고 노는 이치와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혼자 여행다니는 걸 좋아한다. 사실 이번 여행도 보름 정도 머물면서 (잠깐 동행인이 있었지만) 주로 혼자 다니면서 거의 매일 공연을 봤다. 폴 매카트니의 공연을 비롯, 로 알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재즈클럽, 로컬 뮤지션 공연, 뮤지컬도 3편이나 봤다. 특히 오페라의 유령은 정말 좋아서 떠나기 전에 한번 더 관람했다. 또 리버풀에도 1박 2일 정도 가서 빠듯한 일정이지만 비틀즈 투어도 했다. 혼자였기 때문에 온전한 음악과 동행하며 여행에 집중할 수 있었다.



Q 특히 인상에 남은 공연이 있다면?

여행 전에 미리 여행기간 동안 런던에서 열리는 공연을 모두 체크했다. 그 후 유튜브에서 해당가수의 음악을 일일이 찾아 들어본 후 볼 공연을 결정했는데 그 중 20대 여성보컬이 있는 인디밴드의 공연이 인상적이었다. 곡도 좋았지만 관객 중 어떤 할아버지를 보았다. 할아버지가 인디밴드의 공연을 즐기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밥달런부터 이런 인디밴드까지, 꼭 봐야 할 공연리스트를 메모하고 공연을 다닌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대를 뛰어넘어 별로 유행하지 않는 장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항상 있다는 것이 멋지다.

Q 공연 외 여행은 어땠나?

사실 하루하루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웃음) 워낙 술을 좋아해서-특히 낱술을 좋아하는데-런던러들에게 낱술이란 마치 식사 후 커피 마시듯 자연스러워서 나와 잘 맞았다. 이런 걸 보면 몸에 배인 그들의 경제적 혹은 문화적 여유가 참 부럽다.

Q 장기하에게 여유있는 여행이란?

여행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우연한 발견이라고 생각한다. 낯선 곳을 걷는 것을 좋아한다. (사실 길치라서 대부분이 내게 낯선 길이지만) 런던에서 여유롭게 지내다 보니 주말인 것도 잊은 채 타워브릿지로 향하다

관광객이 너무 많아 발걸음을 돌려 빌딩숲을 헤매고 있었는데 킹에드워드 메모리얼파크가 눈에 띄었다. 무작정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거짓말처럼 템즈강이 확 펼쳐졌고 그 광경에 넋을 잃었다. 이런 것이 여유이자 여행인 것 같다.

※ 가수 장기하의 여유있는 런던여행기는 여행 팟캐스트 <소미나의 여행사전>을 통해 자세히 들을 수 있다.

▶ 본 인터뷰는 팟캐스트 방송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 승주나무 오승주 여유는 내 생존의 조건, 가족들의 표정으로 성공을 가늠한다

스토리텔러 김상아 - baram@bambaram.net

바람 불고 파도 치는 제주에서 해녀 어머니와 뱃사람 아버지, 거침 없는 누나들과 함께 자란 <책 놀이 책>의 오승주 작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병치레가 잦았지만, 기질만큼은 파도와 바다의 역동성을 닮아 무언가에 한번 꽂히면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바다소년'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질주하면 항상 넘어졌다. 인생에서 빨리 가려고 하면 할수록 깨지고 다쳤다. 그렇게 뼈를 깎는 수 차례의 경험 끝에 그는 깨달았다. '여유'가 '생존의 조건'이라는 것을. "은 우주가 나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여유가 없으면 하나도 듣지 못한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목적'과 '관념'을 버리고 '오감'을 활짝 열어놓고 경청하니 그 제서야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서두르지 않는 '여유'가 사람을 살리고, 오히려 목적지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역설은 이후 그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길잡이가 되었다.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급성폐렴과 림프성 결핵을 앓았던 그가 다섯 살이 될 때까지 그의 어머니는 제주에서 서울대 병원까지 한 달에 무려 열일곱 차례나 아이를 업고 오가며 지극정성으로 그를 살려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감사했던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읽고 시를 쓰는 것은 그에게 유일한 낙이었고, 다정한 친구였다. 이처럼 책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즐거웠던 그는 꾸준히 서평을 쓰기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언제나 실마리가 되는 책을 떠올렸다.

"승주나무"라는 필명으로 2002년부터 서평을 연재했어요. 군 복무시절에도 전군 인터넷 북클럽인 '책가지'에서 활동했고, 알라딘에서 연재한 '승주나무의 책가지'로 여러 차례 '올해의 알라딘'로 선정되기도 했죠. '오승주의 불원천리'라는 서평 메일링과 SNS 기반의 '소셜북스' 페이지를 통해 많은 책벌을 만났고, 닫힌 마음과 단절된 가족의 소통을 책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10여 년간 도서관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책 놀이' 독서교육 활동을 꾸준히 진행한 것이 결실이 되어 <책 놀이 책>이라는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어머니의 얼굴이었어요. 저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고,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저를 살려주신 어머니께 제일 먼저 날아가 책을 선물했을 때, 어머니의 표정이 환하게 살아나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책을 통해 위로 받고 성장해온 그는 잡지사 기자와 시민단체 활동, 강남의 눈술강사 밥벌이 등 지난한 인생 여정을 지나오면서 책과의 깊고 순수한 인연의 끈을 놓지 않았고, 명실상부한 '책 요정'이 되어 책을 짓고, 책을 소개하고, 책으로 사람들을 이어주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의 닉네임 '승주나무'는 대학시절 첫 사랑과 '나무'와 '항기'라는 애칭으로 서로를 부르면서 얻게 된 이름이다. "그런데 항기는 쉽게 날아 가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의 아내인 두 번째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뿌리'라는 이름을 지어 붙였고, 이름 덕분인지 '승주나무'와 '은주뿌리'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는 군복무 시절 문서수발 병으로 일하면서 연인에게 오는 편지가 50통이 넘어가는 커플은 대개 끝까지 가지 못하고 깨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역설적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일도, 사랑도, 우정도 헌신과 열정이 지나치면 빨리 식어버리거나, 활활 타올라 재가 되어 버린다는 것을. 오래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일수록 절제와 아름다운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에게 성공을 가능하는 조건은 단 하나, '가족들의 밝은 표정'이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더라도 가족들의 표정이 어두우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다. 그는 '언어'보다 '비언어'가 진실을 제대로 말해준다고 믿기에 언제나 가족들의 표정을 살핀다. 혹시 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이유로 정작 가족을 잊어 버리고, 가족의 행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도 책장을 덮고 '잠깐 멈추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려고 노력한다. 오감을 열고 느낌에 귀를 기울이고 아내와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느낌은 정직해요. 아무리 욕심이 나도 '이건 아닌데……'라는 느낌이 오면 내려 놓으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유'를 가지세요. 빨리 간다고 빠른 것이 아니고, 조금 늦어도 늦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얻은 그의 '여유'라는 화두가 가슴 깊이 다가왔다.

※ 페이스북 책 커뮤니티 소셜북스 <https://www.facebook.com/socialbooks>



승주나무가

제안하는 무브꺼리 5

1. 개미 얼굴 구경하기 놀이

개미를 관찰하려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멈춰야 한다. 가만히 멈춰서 숨 죽이고 매직아이를 보듯이 집중하면 개미가 가만히 얼굴을 보여 준다. 개미의 얼굴을 보면 무엇 하느냐고? 개미의 얼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내 얼굴도 보인다.



@weather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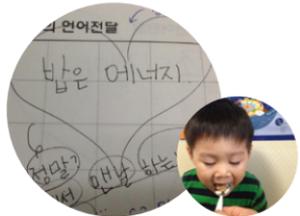
2. 온, 오프라인 댓글 놀이

댓글을 남길 수 있는 말과 글에는 오픈 마인드와 따뜻한 마음씀씀이가 묻어 있다. 일반적으로 전달되는 막힌 메시지는 쉽게 댓글을 달 수 없다. 책에 대한 느낌과 책과 연결된 삶의 이야기로 소통하는 소셜북스도 댓글을 통해 생명력을 갖는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루 하나씩 댓글을 달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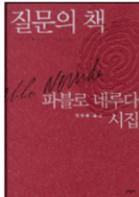
3. 가족 유행어 만들기 놀이

이제 막 말을 시작한 아이들도 재미있게 따라 할 수 있는 가족 유행어를 만들어 노래하듯이 같이 부르면 자연스럽게 가족의 철학과 믿음이 생긴다. 우리집 유행어로는 "밥은 에너지", "우리집엔 '빨리'라는 말이 없어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말은 2등, 행동이 1등이야!" 등이 있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4. 패턴을 초기화하는 서점에서 의외성 놀이

서점에 가면 저마다의 패턴대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역사 코너만 가는 사람, 여행책만 보는 사람, 실용서만 찾는 사람 등. 한 번쯤은 자기 패턴을 초기화해서 전혀 안 가본 코너에서 의외의 책을 한 권 골라보는 의외성 놀이를 해보자.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취향을 발견하게 될 지도 모른다. 나도 의외성 놀이를 통해 네루다의 <질문의 책>이라는 보석 같은 시집을 만났다.



5. 책과 책, 책과 사람 짝 짓기 놀이

짜짓기로 책 읽기가 흥미진진해진다. 가령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어떤 사람에게 소개해주면 가장 좋을까를 떠올리면 독서의 질이 달라진다. 거꾸로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책을 떠올려 보는 것도 재미있다. 이밖에 책과 책의 만남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책 놀이를 엮어 가면 책 읽기에 활기를 더해준다.



MUSE

여유의 온도

스토리텔러 김보미 — ddang@bombaram.net

앞만 보며 실새 없이 달리는 열정적인 그대,
잠시 쉬어가는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

상황A.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함께 냉동고에 넣었을 때

상황B. 열정적인 당신과 차가운 상대를 함께 냉동고에 넣었을 때

두 개의 상황마다 어떤 것이 더 빨리 열게 될까?



상황A의 답: 뜨거운 물이 더 빨리 얼게 된다.

'차가운 물이 더 빨리 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당신,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를 했으나, 정답은 그 반대다.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빨리 어는 현상, 이를 학계에선 음펨바 효과Mpemba Effect라고 한다. 상식과 어긋나는 이 현상은 기원전 4세기 때부터 알려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뜨거운 만큼 빨리 식는다."고 말했다. 그 후 수 세기 동안 여러 학자에 의해 이 효과가 언급되었고, 이 효과는 1963년 탄자니아의 중학교 3학년 음펨바의 우연한 실험으로 '음펨바 효과'로 학계에 명명되었다. 2012년 영국왕립화학회에서 원리규명을 위해 경연을 열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많은 이들이 그럴듯한 몇 가지 가설을 세워 음펨바 효과의 원리를 밝혀려 했지만, 이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이론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상황B의 경우는 어떨까? 원인불명인 상태임에도 음펨바 효과는 뜨거운 물에만 작용하는 건 아닌듯하다. 앞만 보고 달리는 뜨거운 당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다.

상황B의 답: 열정적인 당신이 더 빨리 얼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열정적인 당신이 차가운 상태보다 더 빨리 얼게 될지도 모른다. 대부분 이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뜨겁게 달리지만, 현실의 벽 앞에 절망하게 되면 더 빨리 얼어붙고 만다. 얼음이 되기 위한 조건은 '육각형'에 달려있다. 육각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밀집보다 특정 공간이 필요하다. 뜨거운 물의 분자들은 워낙 활발한 상태로 요동치기 때문에 육각형을 형성하기가 쉽고, 차가운 물의 분자들은 워낙 정적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육각형을 만들기 어렵다는 가설이 있다. 앞만 보고 내달리는 뜨거운 당신, 뜨거움도 좋지만, 갑자기 극한의 상황에서 얼어버릴까 걱정이다. 이렇게 뜨거운 당신을 은은한 온기로 바꿔줄 여유가 필요하다.

여유의 온도

인디언은 자녀를 키울 때 숲 속에서 아이 혼자 지내는 시간을 자주 갖게 했다. 아이는 숲 속에서 오감을 열고 느릿하게 걷고 한가롭게 휴식하면서 사색, 기쁨, 고마움, 기다림, 희망, 행복 등을 느꼈다. 여유와 동반되는 '휴식(休息)'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사람이 나무 옆에서 마음을 자유롭게 풀어놓는 것'이 된다. 풀어 놓아야 할 마음은 평소 생활 속에서 가지는 반목, 갈등, 경쟁, 욕심 등으로, 이것들이 빠져나가고서야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자신의 내부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여유'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이와 같을 것이다. 홀로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갖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게 된다.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여유. 실재 없이 열정을 다해 달리는 당신의 온도를 여유라는 온도로 잘 살펴보자. 자칫하다가 차가운 상대보다 더 빨리 얼어버릴 지도 모를 테니 말이다.



프리미엄 호텔 할인은 혜택의 시작일 뿐

비자 시그니처로 세심한 서비스와 품격까지 누리세요



go.

국내외 800여개 호텔에서 더 높은 혜택을 - 비자 시그니처 카드

W서울, 서울 웨스틴 조선, 콘래드 서울, 리츠칼튼 서울을 포함한 국내외 유명 호텔에서 무료 빌렛파킹, 식음료 할인과 객실 업그레이드까지, 당신의 품격과 여유를 한번 더 올려주는 비자 시그니처.

자세한 혜택 및 이용방법은 www.visasignature.kr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비자카드 페이스북을 방문하여 혜택을 경험하세요 www.facebook.com/visakorea



Visa Signature

세상 속 더 많은 사람들이
go with Visa.

VISA
SIGNATURE

비자 시그니처 카드 발급처: BK7(많은성) | 코신(복은성) | KB국민카드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외환카드 | 우리카드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한국씨티은행